



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사 부경대 워커하우스 제뢰등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첫발’ 뗐다

부산시 잠정목록 등록 추진 설명회… 10년 내 등재 목표

남구 4건 등 ‘피란수도 부산’ 상징 간직한 25건 선정

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사, 부경대 내 워커하우스, 제뢰등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 유네스코 세계 유산 잠정 목록 등록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첫 단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부산 전역의 피란 관련 건축·문화자산 1,000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중 유형자산 264곳, 무형자산 300여 건으로 분류한 뒤, 전문가 심층토론·현장조사 등을 거쳐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고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18곳, 25건의 대상유산을 선정했다. 남구는 원도심권인 중구, 부산진구, 서구 다음으로 많은 대상

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선정 유산들은 종래의 서울 중심적인 ‘임시수도’에서 벗어나 ‘참혹한 전쟁에 맞서 역사적 터 위에 만들어진 휴머니즘적 수도’라는 의미의 ‘피란(避難)수도’의 개념이 적용됐다.

남구의 대상유산 4건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자 유엔군이 파견된 최초의 전쟁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감만시민부두 내 제뢰등대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피란선박 항로 유도시설 역할을 충실히 했고 우암동 소막사는 피란민 주거시설로 피란 시절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부경대 학생지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워커하우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워커 장군과 참모들이 낙동강전투를 지휘한 지휘소였다는 역사성이 가치 있게 평가됐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대상유산들을 문화

■남구지역 피란수도 잠정목록 대상유산 및 선정 사유

대 상 유 산	선정 사유	기 능
유엔기념공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	행정군사지원
워커하우스 (현 부경대 학생지원시설)	낙동강전투 미8군사령관 지휘소	
우암동 피란민 주거시설	소막사를 활용한 피란민 주거시설	생활경제지원
제뢰등대	피란선박 항로 유도시설	



우암동 소막사



부경대 워커하우스



감만시민 부두내 제뢰등대

재정 잠정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국 내심사를 거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및 현장심

사를 거쳐 2023~2025년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시킨다는 목표다.



부산박물관 힐링 산책로 개통

부산시립박물관이 박물관 내에 숲길을 조성했다. 새 산책로는 박물관 외곽 담장을 따라 박물관 입구까지 170m, 칠원수와 대밭 사이로 길을 내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전망이다. 기존 산책로 200m와 함께 박물관을 순회할 수 있고 문화회관 유엔평화공원, 유엔기념공원과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부산박물관 부산관 7월 5일부터 1년 휴관

전면 리모델링 착수… 동래관·야외전시는 정상 운영

7월 9일부터 관람시간 단축

부산시립박물관 부산관(제2관)이 7월 5일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휴관한다. 전시 및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공사 때문이다. 부산관 휴관 중에도 동래관(제1관)의 상설전시실(구석기시대~고

려시대), 문화체험관, 소장품, 교육실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박물관 야외 전시물 관람도 가능하다.

이번 부산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2013년 완료한 동래관(제1관) 리모델링에 이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물관 측은 50억원을 투입해 부산관을 ‘환골탈태’ 시킨

다는 방침이다. 전열장·조명·보안·통신·전기 등 전시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고 영상·모형 등에 최신 제작 기법을 도입한다. 또 문헌자료실을 동래관(제1관)으로 이전해 전시 공간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박물관은 효율적 박물관 운영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7월 9일(토)부터 오전 9시~오후 8시 인 관람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단축 운영한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은 오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610-7141~5, 7111

BIFC 63층 전망대

연말까지 무료개방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전망대 무료 개방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BIFC 건물관리 회사인 부산파이낸스센터 AMC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BIFC를 운영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63층 전망대를 5월 중순까지 개방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꾼 12월말까지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밤 9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건물 내 무료주차도 가능하다. ☎955-5114

남구.캠코 첫 취업간담회 <3면>

부경대 스웨덴 적십자병원 <4면>

부산박물관 비석거리 <5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6월 16~30일

유엔기념공원 잠든 노르웨이 참전용사 트베이트 씨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노르웨이 참전용사 레이달 게오르그 트베이트 씨의 묘. 의료지원단 파견 5개국 가운데 유일한 안장지이다.

의료지원 5개국 유일한 전사 희생자 한국.스칸디나비아 잇는 ‘66년 가교’

■노르웨이 유족 이메일 인터뷰

21개국 유엔 참전국 깃발이 휘날리는 유엔기념공원의 상징구역, 여느 나라와 달리 노르웨이 구역에는 단 하나의 묘소만이 외롭게 있다. 노르웨이 참전용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레이달 게오르그 트베이트(Reidar Georg Tveit) 씨의 묘다.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는 전투병력 대신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으로 파병했다. 이들 다섯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만 희생자가 나왔다.

이동 야전병원(NOMASH)을 운영한 노르웨이는 전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대신 세 명의 용사를 잃었다. 이 중 두 명은 정전협정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사망해 트베이트씨가 유일한 ‘전사 희생자’로 기록되어 있다.

의료지원 국가 중 유일한 전사 희생자임에도 트베이트 씨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본지는 주한 노르웨이대사관과 남산 에글리엔 전 노르웨이 참전용사협회 회장, 노르웨이-한국전선협회 초대회장인 루이 팔크 의원의 도움으로 딸 벤데 샌도스(67) 씨와 적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트베이트 씨는 군인은 아니었다. 그는 의료진과 장비를 실은 상선 벨로선의 2등 기관사였다. 재한유엔기념공원 관리처의 안장자 사망기록지에는 ‘1951년 8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도중에 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망원인은 병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더운 날씨 탓인지 이를 뒤 매장했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 한 살배기 딸과 부인을 두고 있었다.

트베이트 씨는 노르웨이 남부 크라게뢰(kragerø) 출신이다. 인구 만 명 남짓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로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겨울, 크라게뢰’의 배경된 곳이다.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상선을 탄 벼슬 깊은 뱃사람이었다. 딸



트베이트 씨와 부인(사진 왼쪽).

선원으로 참전 1951년 8월 부산서 사망

102세 부인 재혼 않고 평생 독신 생활

당시 한 살배기 딸 “한국인에 감사”

샌도스 씨는 “아버지는 2차 대전 때도 선원으로 참전해 미국과 영국을 오갔다”고 했다. 부인 베티 트베이트 여사는 올해 102세로 현재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편을 잃은 후 지금껏 재혼하지 않고 혼자 딸을 키웠고 고령임에도 정신은 또렷하다고 한다.

샌도스 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유엔기념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참석하신 분들이 아버지 묘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고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샌도스 씨는 부친의 묘를 참배하러 유엔기념공원을 다섯 차례나 방문했다. 그때마다 잘 정돈된 묘를 보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노고에 고마워했고 아버지 묘를 노르웨이로 이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트베이트 씨의 묘는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르웨이 호콘 마그누스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그의 묘를 참배하고 참전기념비를 세웠다. 노르웨이 외에도 한국전 참전 북유럽 국가의 군 관계자, 참전용사, 언론사 그리고 수많은 북유럽 관광객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유엔기념공원을 꾸준히 찾고 있다. <관계기사 4면>

남구, 지역 국회의원 초청 주요 현안설명회

남구는 지난 17일 김정훈(남구갑), 박재호(남구을) 국회의원을 초청해 ‘민선 6기 주요 현안설명회’를 열었다.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이종철 남구청장 등 구청 간부들과 박재호 의원 및 당직자, 보좌진, 지역 구의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당선 이후 첫 상견례 행식을 띤 이날 현안 설명회는 한 시간 가량 남구실내빙상장 건립 등 10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조선의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마련된 김정훈 의원 초청 현안설명회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4선 의원인 관계로 설명회는 배석자를 최대한 줄여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에 김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남구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두 의원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함께 배정됐다.

■안내

7~8월 방향지시등 위반 집중단속

부산 경찰청과 남부경찰서가 7~8월 두 달간 방향지시등 점등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내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전에 깜빡이등을 켜고 진로를 바꿔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작동만으로 보복운

전 48%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도·홍보 : 6월 13일~30일
▶집중단속 : 7월 1일~8월 31일
▶방향지시등 위반시 범칙금 3만원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과태료
이기대·유엔평화공원 내달 단속

앞으로 부경대 대학로, 이기대공원, 유엔평화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경대 대학로(용소로·약도 참조)가 지난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은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부산예술회관까지 800m. 3개월의 계도기

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이 구간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과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올해 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기대공원과 유엔평화공원 일원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세 곳 외에도 모든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단속된다. 남구보건소는 관내 모든 금연구역에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요원을 투입해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607-6415

